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4호 【루계 제25703호】 주체106(2017)년 7월 13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리만건동지, 리병철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주체적로케트공업의 개척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행복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백두의 담력과 배짱, 사생결단의 애국헌신으로 온갖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압력을 단호히 쳐갈기시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명주국으로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7월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고도 그 모든 영광을 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한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을 만리대공에 성공적으로 쏴올려 백두산대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움으로써 주체조선의 자주적존엄과 강용한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사옹위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의 영웅적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전사들이 우리 식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개발한 투쟁정신과 투쟁본때로 최강의 전략무기, 주체탄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더 많이, 더 빨리 개발완성하여 당의 전략적핵강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제일기수, 선봉투사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당의 권위와 조국의 존엄이 실린 주체탄의 뇌성을 줄기차게 울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결사보위하고 백두산대국의 선군혁명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져나갈 굳은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정치보도반

《북조선령도자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명령》, 《북조선로케트 미국의 심장부타격 가능》

세계언론들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4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세계언론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이르꾸쯔크블로그스포트.루》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지도밑에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시험발사를 앞두고 로케트총조립전투현장을 계속 찾으시여 건장한 전투를 벌리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발사준비과정을 세심히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와의 기나긴 대결이 드디여 마지막최후계선에 들어섰다고, 조선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선의 의지를 시험하는 미국에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명령에 따라 주체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가 기운차게 발사되였다.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는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조선은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조선이 이번에 성공시킨 대륙간탄도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2 802㎞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933㎞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시험발사에 참가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미국이 《독립절》에 받은 《선물보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할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하시였다.

베네수엘라의 인터네트신문 《엘 씨글로》는 북조선이 시험발사한 《화성-14》형미싸일이 엄연한 대륙간탄도미싸일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판단하고있다, 북조선은 이번 미싸일발사로 미국본토의 주요대도시들에 핵공격을 가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고 평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이란의 파르스통신, 수리아의 사나통신, 신문들인 《알 사우라》, 《티슈린》, 《알 와딴》, 라오스통신, 인디아의 신문 《라이징 유럽》, 인터네트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 싱가포르신문들인 《스트레이츠 타임스》, 《런합조보》, 딴마의 신문 《더 미로 데일리》, TV방송, 에질트신문들인 《알 야옴 알 싸비아》, 《알 미쓰리 알야옴》, 《알 파즈르》, 《알 아흐람》, 브라질의 신문 《꼬레이우 브라질리엔세》, 인터네트홈페지 《마르사 뻬르데》, 베네수엘라의 텔레쑤르TV방송, VTV방송, 인터네트신문 《MSN》,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에스빠냐 바스꼬주체사상연구소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브라질위원회, 브라질선군정치연구센터,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을 비롯한 광범한 세계언론들이 《북조선령도자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명령》, 《김정은령도자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지도》, 《북조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 선언》, 《북조선 미국(독립절)에 로케트 발사, 트럼프에게 보내는 강한 메쎄지》, 《북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종식시킬것이다》, 《북조선로케트 미국의 심장부타격 가능》 등의 제목들로 우와 같은 소식을 널리 전하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세계가 공인하는 김정은동지》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보도물들 특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보도물들이 6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로씨아신문 《뜨스까야 네델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세계가 공인하는 **김정은**동지》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은**동지의 모습에서 세계는 20세기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와 21세기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비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틀림없이 이어나가고계시는데 대해 전한 외신반향들을 소개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렘위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편집한 글 《**김정은**령도자와 아이들》에서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가시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천출위인의 숭고한 후대관을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 전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불패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워주시여》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국방력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선군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천출위인의 업적을 찬양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으로 전쟁의 검은구름이 짙게 드리우고있다.

그러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반제자주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철주야의 희생적인 헌신과 로고가 있어 조선은 위력한 주체무기와 첨단무장장비들을 그쯘히 갖춘 불패의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멋》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멋, 그것은 한마디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다.

출중한 령도력과 결단력, 드센 배짱과 담력으로 놀라운 사변을 안아오신 **김정은**최고령도자이시야말로 불가능을 모르고 언제나 백승만을 떨치시는 강대성의 상징, 희세의 위인이시다.

그이에 대한 흠모와 신뢰는 조선의 지경을 벗어나 온 세계에 퍼져가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로씨야련방공산당 노보씨비르스크주위원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김정은**령도자의 창조방식》, 《백승의 병진로선》, 《민족의 영광, 찬란한 미래》 등 제목들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니신 고매한 위인적풍모를 칭송하는 글들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자력자강의 만리마대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세계를 진감시킨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온 나라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당중앙의 전략적구상을 높이 받들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는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정신력과 기술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주체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조선로동당의 강력한 전략무기체계를 완성하여 국가핵무력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길에 또다시 통쾌한 승전포성을 울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전략무기발전의 정수인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하여 백두산대국의 자주적존엄과 영웅적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떨친 국방과학전사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수여식장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적로케트공업의 개척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우리 조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최대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절불굴의 의지와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피어린 결사전을 벌려 당의 주체적핵무력건설위업을 자랑찬 성과로 받든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로케트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천신만고하여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구상하는 전략무기체계를 어김없이 내놓은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하늘높이 떠받들고 온 세상에 내세워주고 싶어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핵무력건설대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을 개발완성하여온 잊지 못할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면서 반만년민족사의 대숙원을 풀어준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세계정치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이번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대성공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립증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이 우리 공화국을 세계최강의 로케트강국의 전렬에 올려세우기 위해 혁명에 대한 충실성, 열렬한 애국심, 고귀한 땀을 다 바치며 헌신적으로 투쟁해온것처럼 앞으로도 당의 국방공업정책을 잘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로케트연구개발집단앞에 나서는 새로운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붉은 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과 같은 혁명의 핵심력량이 있는 한 두려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고 하시면서 당의 믿음직한 혁명전우인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전 앞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최강의 군사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더욱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의 선두에 서시여 나라의 국방공업을 사회주의강국의 병기창으로 튼튼히 다져주시고 백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을 온 누리에 떨쳐가시는 희세의 선군령장을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게 우리 나라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과 공민의 최고영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정일**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표창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표창장,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여 국방과학전사들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값높은 위훈의 창조자로, 민족의 영웅으로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뜨거운 감사의 정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참가자들은 선군조선의 상징이고 존엄인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만리대공에 장쾌하게 쏴올린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적들의 가중되는 핵위협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위력한 전략적공격수단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더 빨리 개발완성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새로운 승리의 포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갈 총정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 군자리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주체조선의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벼려나가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전렬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자

산림복구전투승리를 앞당길 열쇠를 찾아쥐고

양덕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사업은 엄혹한 자연속에서 어린 나무모를 키워 심고 해를 이어가며 가꾸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나라의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입니다.》

나라의 모든 산들을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자면 나무모생산을 부쩍 늘이는것과 함께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도 품을 들여가며 책임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모든 산에서 황금을 따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있는 양덕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일본새가 눈길을 끈다.

당정책관철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자강력으로 나무모증산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최근년간 군산림경영소에서는 나무모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하였다. 결과 나무모생산량은 산림복구전투전에 비해 3.5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 이 성과를 두고 종업원들 누구나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하지만 지배인 리성철동무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당의 높은 뜻에 비해볼 때 지금까지 거둔 성과는 첫걸음을 내짚은데 불과했던것이다. 더우기 멀고 험한 구지골을 찾아오시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해도 그렇고 군적인 산림조성사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결속하자면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해야 하였다.

군과 경영소일군들은 나무모증산은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에서 올해에는 보다 높은 생산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나무모온실에서 한해에 나무모를 2회 생산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또 하나의 수백㎡짜리 강질유리온실을 일떠세우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물론 이것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한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였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 당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며 막아서는 모든 난관을 웃으며 뚫고나갔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이들은 끝끝내 나무모온실에서 리용할 기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나무모들의 성장속도를 종전보다 2배로 높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또한 야외재배장에서 자라는 나무모들의 영양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미 건설한것보다 면적이 훨씬 더 크면서도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립체적으로 리용하는 강질유리온실을 또 하나 보란듯이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시켜 좋은 결실을 보았다.

그리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나무모생산을 지난해보다 1.2배이상으로 끌어올릴수 있게 하였다.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나무심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심은 당해의 비배관리는 나무의 뿌리발육과 초기생육보장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장일남, 동희성동무를 비롯한 경영소의 일군들은 이 사업에 언제나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사소한 부족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산지들을 빠짐없이 밟으며 요구성을 무단히 높이였다.

산림감독원들과 산리용반원들도 산지에 갓 심은 애어린 나무모들을 제 살점처럼 여기고 정성다해 가꾸었다. 태홍지구만 놓고보더라도 이 지역을 담당한 산림감독원 조정호동무와 산리용반원들은 해당 단위들이 심은 나무들도 자기들이 전적으로 맡아키운다는 립장에서 비배관리에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여름의 뙤약볕속에서 북주기만은 매일과 같이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김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관목들도 바투 베주어 나무의 생육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가래나무잎우림액을 비롯한 식물성농약과 여러가지 효능높은 성장촉진제들도 자체로 마련하여 리용하는 등 심은 나무들의 영양관리에 큰 품을 들이였다.

군안의 다른 지구를 담당한 산림감독원들과 산리용반원들, 근로자들 역시 어린 나무들을 거목으로 자래우기 위해 진심을 바치였다. 결과 지난 시기는 물론 올해에 심은 나무들도 땅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같이 잘 자라고있다.

뼈심을 들인것만큼 산에서 황금을 거둘수 있다. 군일군들과 근로자들모두가 이 말을 늘 입버릇처럼 외우며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를 정성다해 심고 가꾸어가고있다.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고 고향산천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나가는 길에 애국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이들의 노력은 얼마나 헌신적인것인가.

본사기자 김성일

산불피해와 그 방지대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불을 방지하는것은 산림보호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입니다.》

산불을 미리막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것은 산림조성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은 산불이 나면 오래동안 애써 조성한 산림자원이 순간에 재더미로 되기때문이다.

나무모를 키워 산에 옮겨심기까지는 많은 품이 든다. 종자를 선별하여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뿌리고 싹이 나온 후에는 열번이상 김을 매고 물을 주면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애써도 한해에 한뽐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 이런 나무모를 키워 산에 아무리 많이 심어도 산불이 나면 헛수고로 되고만다.

산불에 의한 피해는 병해충이나 기타 다른 자연재해로 하여 입는 손실과 대비할바가 못되게 크다.

귀중한 목재자원이 타서 없어지게 되며 산림의 구성상태를 나쁘게 하고 토양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산불이 일어났던 산들에는 잡초들이 자라므로 나무모를 심어도 제대로 자랄수 없게 된다.

또한 큰물로 인한 토지류실을 막을수 없다.

벌거숭이산에서 토양이 씻겨내린 후에 나무를 심자면 그전보다 몇십배의 품을 들여야 할것이다.

지금은 산불이 나지 않는 계절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방심할수 없다.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는 산불방지를 산림보호의 첫째가는 사업으로 내세우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산불은 주로 담배불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일어나며 벼락이나 태양열 등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산불을 미리막자면 전망감시와 이동감시를 통한 산불감시를 잘하여야 한다.

전망감시는 높은 곳에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산불위험개소들을 감시하는것이다. 이동감시는 이동순회하면서 감시하는것이다.

또한 산불막이선을 잘 만들어야 한다.

해당 부문들에서 산불막이선들을 다시 정리할것은 정리하고 새로 만들것은 만들어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 번져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림근처에 있는 주민지구들에서 늘 각성하고 어린이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나지 않게 학교와 가정들에서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

또한 입산질서를 철저히 지키며 산림을 통과하는 전기선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한다.

산림순시원들과 산불감시원들의 역할을 높이고 산불이 일면 제때에 동원시킬수 있는 정연한 군중동원체계를 세워야 한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방화력량과 기재들이 해당 지역으로 임의의 시간에 즉시 가닿을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산림조성과 함께 산림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조국의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한다.

리충일

자력자강이 안아온 열매

장연군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장연군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양묘장은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를 담보하는 병기창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할수 있게 모체양묘장을 새롭게 꾸리였다. 결과 모체양묘장의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과 야외재배장에서 해마다 200여만그루의 튼튼한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모를 키우는것은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이며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는 양묘장들에서 나무모생산을 어떻게 따라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군산림경영소에서는 지난 기간 나무모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수 있었다. 경영소의 모체양묘장에는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도 꾸려져있고 나무모영양단지성형기, 혼합기, 분쇄기 등도 갖추어져있었다. 하지만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은 전시에 탄약을 보장하는 군수공장이나 같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자자구구 학습하며 리철수, 리경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자기들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모체양묘장을 놓고보아도 그러했다.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할수 있게 꾸리지 못한 결과 생산량이 제한되였다.

산림경영소일군들은 모체양묘장을 훌륭히 꾸릴것을 결심하고 앞선 단위들을 수없이 찾아다니며 경험을 배우기도 하였다.

그후 모체양묘장을 새로 꾸리는데 달라붙었으나 걸린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일부 사람들은 토대가 빈약한데 조건이 보장되는 차제로 동안을 두어가며 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였다. 그러나 지배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건타발을 하며 주저앉으면 책상주의자가 되고 물러서면 패배주의자가 된다.

일군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다. 당정책의 운명이 일군들의 어깨우에 실려있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뼈에 새긴 그들은 이 사업을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당정책을 대하는 관점과 사상문제로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군일군들의 방조밑에 이미 있던 건물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는것은 물론 식당, 세목장 등을 건설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지게 되였다.

그렇다고 일이 저절로 풀려나가는것은 아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면서 중시한것이 있었다. 그들은 과학기술보급실이 보급기지로서만이 아니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연구와 생산, 보급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거점이 될수 있도록 멀리 앞을 내다보며 꾸리게 하였다.

조건이 어려웠지만 일군들은 모든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의 통마를 타도록 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결과 짧은 기간에 콤퓨터망에 의한 앞선 나무모재배기술에 대한 보급과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종전보다 팽화질석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로를 풍기열풍식으로 개조한것을 비롯하여 나무모생산에 필요한 기계들도 적극 창안도입되였다.

이들은 총포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투에서 승리할수 없는것처럼 양묘장을 전시에 탄약을 보장하는 군수공장처럼 꾸릴 때 산림복구전투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말한다.

본사기자 전명일

앞선 나무모생산방법을 도입하여

신의주시산림경영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자연과의 전쟁입니다.》

신의주시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에서는 창성이깔나무모, 잣나무모를 비롯하여 여러 수종의 나무모들이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다.

경영소의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앞선 나무모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는것이 한눈에 알리였다.

나무가지를 땅에 묻어 키우는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이 번듯하게 꾸려져있었다. 물압력에 의해 저절로 돌아가면서 나무모에 물을 줄수 있게 되여있어 그저그만이였다.

절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건이 보장되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분무장치를 질적으로 만드는데 힘을 넣었다. 결과 회전하면서 물을 자동적으로 분무해주는 설비가 원형삽목장에 갖추어지게 되였다. 또한 그 어떤 가물에도 끄떡없게 저류지를 종전보다 더 크게 확장하였다.

이런 삽목장이 경영소에 2개 있는데 모두 200여㎡에서 많은 나무모가 생산되고있다. 이것만 보아도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쓴 이곳 종업원들의 일본새를 알수 있다.

이것도 좋지만 팽화질석을 리용한 나무모생산이 무척 흥미를 끌었다.

경영소에서는 이미 10여t에 달하는 질석을 확보해놓았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질석을 100여리나 떨어진 곳에서 실어날라야 한다는것을 료해하고 그에 필요한 보장대책을 세워주며 이 단위 사업을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일반적으로 질석은 일정한 온도에서 그 부피가 급격히 불어난다. 이런 현상을 리용하여 경영소에서는 팽화질석을 만들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 조명철동무는 팽화질석으로 나무모를 생산하는 경우 그 주기를 훨씬 줄일수 있다, 즉 창성이깔나무모는 1년, 잣나무모는 2년정도 일당겨 산에 심을수 있다고 말하였다.

팽화질석을 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였다. 밑비료를 주듯 땅속에 깔아줄수도 있고 나무모를 심고 물을 쳐서 줄수도 있었다. 경영소에서는 팽화질석을 비료와 일정한 비률로 섞어 하루가 지난 다음 그것을 주었는데 아주 효과적이였다. 종업원들의 말에 의하면 나무모들의 영양상태가 눈에 띄게 알린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영양단지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도 그중의 하나였다.

경영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앞선 나무모생산방법들을 받아들이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산에 심어지는 나무모의 사름률을 높일수 있게 하는데도 큰 힘을 넣었다.

그것이 닥풀우림액에 의한 나무모뿌리처리이다. 닥풀을 뿌리채 말리워 가루를 내고 물에 풀어 나무모뿌리를 담그었다가 산에 옮겨심으면 사름률을 높일수 있었다. 그 실현을 위해 경영소에서는 닥풀을 자체로 보장할수 있는 밭을 조성하고 해마다 리용하고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신의주시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전선에 총포탄을 보내주는 심정으로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이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철훈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 인간개조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정신적고조를 일으키는것은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모든 선동원들이 천리마대고조시기 인간개조의 선구자들처럼 사람과의 사업,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 사회주의강국건설시대 인간개조의 선구자가 되라는것은 우리 당의 뜻이다. 사랑과 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만리마대진군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는 인간개조의 선구자—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심장에 안고 사는 좌우명

함흥모방직공장 완성직장 측장작업반 선동원 최영희동무

사람이 한생을 값높이 빛내이려면 고결한 좌우명을 안고 살아야 한다.

최영희동무에게 가슴속에 품고 산 좌우명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가 한 대답은 뜻밖이였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저도 이 길에서 동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작업반을 옮겨 선동원사업을 시작한 때였다. 고난의 시기여서 출근률이 낮았고 생산실적도 시원치 못하였다. 어쩌다 작업반원들이 거의다 모인 기회에 어려워도 모두다 출근하여 계획을 수행하자고 선동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작업반원들의 반응이 생각밖이였다. 어느 입심드센 녀인이 하는 뒤소리가 그의 귀전에 들려왔다.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말하긴 좋지, 누군 뭐 일나오기 싫어서 안나오는가. …

얼굴이 모닥불을 뒤집어쓴것처럼 달아올랐다. 처녀시절 정방방적직장에서, 2직포직장에서 청년동맹초급일군으로 일하면서 선동원을 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였다. 돌려보니 작업반원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우였다. 서러웠다.

그날 저녁 공장초급당위원장을 찾아간 최영희동무는 울며 하소연했다. 드살이 센 작

업반원들속에서는 선동원을 못하겠다고.

응석부리는 철부지막내를 타이르듯 녀성당일군은 말했다.

《영희동무, 그 작업반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나쁠가? 그들에게 먼저 진심을 주세요. 일찌기 천리마시대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길확실영웅에게 가르쳐주시지 않았나요. 군중을 교양개조하기란 힘들지만 진심으로 믿고 사랑할 때 반드시 감화되고 개조되는 법이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최영희동무는 길확실영웅을 인간개조의 선구자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수록한 도서의 구절을 자자구구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선동원수첩에 적어넣었다.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반드시 감화되고 개조되는 법이다.

이 가르치심은 선동원인 그의 좌우명으로 되였다.

하지만 그 좌우명을 지키기가 결코 헐한것은 아니였다.

나이가 훨씬 우인 김동무와의 사업이 그러했다.

기능이 높은 그가 오래동안 출근하지 않다보니 생산에서 애를 먹는적이 드문하였다. 퇴근길에 공장에서 10여리나 떨어진 집에 우정 들린 선동원에게 처음 차례진것은 김동무의 외면과 시어머니의 푸대접이였다.

공장이 너무 멀고 집살림도 돌봐야 하니 우리 며느리는 아예 단념하라고 쐐어말하는 시어머니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온 선동원은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그의 집을 찾았다. 어느 휴식날에는 김동무의 시어머니와 함께 터밭김을 매며 며느리가 작업반에 없어서는 안될 기능공이라는데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퇴근길에 들렸을 때 김동무는 심하게 앓고있었다. 그를 무작정 들쳐업은 선동원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온밤 환자옆을 떠나지 않았다.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와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는 선동원의 진심은 끝내 김동무와 가족들의 마음을 울렸다. 완고하기로 소문났던 김동무의 시어머니는 선동원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흘리며 며느리의 일을 잘 도와줄것을 약속하였다. 그후 김동무는 집단의 사랑을 받는 혁신자로 일떠서 자기 자리를 꿋꿋이 지키였다.

김동무만이 아니였다.

남편을 잃고 고난앞에 일시 주저하며 동요하던 한 녀성작업반원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어 혁신자의 영예를 떨치게 하고 그가 일터에서 순직한 후에는 자식들의 생활까지 변함없이 맡아 돌보아주었다.

과연 무엇이 체소하고 연약한 선동원으로 하여금 이런 힘을 낳게 하였던가.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심장속에 안고 사는 좌우명이였다.

선동원의 진심은 생활이 어렵다고 다른 일터를 넘겨다보던 작업반원이 마음의 짐, 삶의 닻을 내리고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게 하였다. 가정문제로 일터에 안착을 가지지 못했던 송동무는 여러차례 찾아와 아버지와 오빠를 만나 설복하는가 하면 작업반원들을 발동하여 이사짐을 날라주고 집도 꾸려주며 정을 기울이는 선동원의 진심에 이끌려 인생의 새 출발을 하였다.

올바른 좌우명으로 사는 생은 성공하는 법이다. 복잡하던 작업반이 오늘은 화목하고 일잘하는 혁신자집단으로 되였다. 당에서는 31년세월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 인간개조의 선구자로 진심을 바쳐온 최영희동무에게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이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었다.

진심을 바치라. 그러면 교양못할 사람이 없고 모두다 혁신자로 만들수 있다.

바로 이것이 최영희동무의 선동활동을 통해 찾게 되는 교훈이고 진리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향란

선구자의 값높은 한생의 재부

수풍직물공장 정단작업반 선동원 배청옥동무

선동원의 한생의 재부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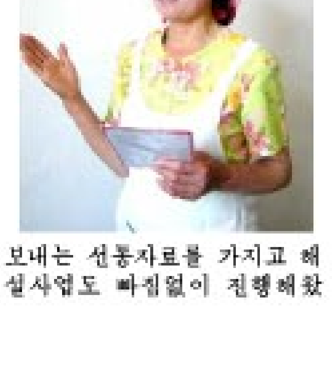
수풍직물공장 정단작업반 선동원 배청옥동무에 대한 취재과정에 우리는 그 대답을 찾았다.

배청옥동무가 선동원사업에서 개선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가 직포5작업반에서 선동원사업을 할 때 진행된 선동원의 날에 있은 일이였다.

이날 공장당조직에서는 선동원들의 한달사업정형을 놓고 총화평가사업을 먼저 하였다.

배청옥동무의 가슴은 부풀어있었다. 사실 그때 공장적인 생산실적을 놓고보면 그가 제일 앞자리였다. 선동사업측면에서도 공장당조직에서 내려



보내는 선동자료를 가지고 해설사업도 빠짐없이 진행해왔던것이다.

그런데 공장당조직에서는 누구를 앞자리에 내세웠는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려 작업반의 실적을 높이는데 기여한 다른 작업반의 선동원이였다.

충격이 컸다. 선동회수나 채우고 생산계획수행에서 앞장서는것으로 만족을 찾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과연 선동원의 실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작업반의 생산실적이자 선동원의 실적이며 그를 위해서는 뒤떨어진 작업반원들과의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하겠다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내 한생 천리마시대 인간개조의 선구자들처럼 살리라.

새로운 결심을 품은 배청옥동무는 천생산에서 뒤자리를 차지하고있던 같은 작업반 직포공 김동무의 기대곁에 자기의 전투자리를 정하였다.

그리고는 그와 손잡고 천생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뿐만아니라 퇴근길에는 그의 가정에도 들려 애로되는 문제를 알아보고 풀어주군 하였다.

시집간 딸이 아들쌍둥이를 낳았을 때에는 가정에서 마련한 옷가지와 부엌세간도 안겨주었다. 이에 감동된 김동무는 가정생활에 포로되여 정든 공장을 떠나려 했던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으며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잡고 본때있게 일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그후 김동무는 혁신자로 자랑많던 지난날의 모습을 되찾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게 되였다.

배청옥동무는 김동무뿐만아니라 최동무와 정동무의 일손도 도와주고 뜨거운 사랑과 정을 부어주어 그들을 혁신자로 내세웠다.

이 불씨가 다른 직포공들의 가슴에도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지펴주어 온 작업반에는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이 세차게 나래치게 되였다. 이 과정에 작업반은 공장적으로 앞선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다.

그후 정단작업반에서 선동원사업을 할 때에도 배청옥동무는 인간개조의 선구자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정단작업반의 일도 힘들었지만 그는 직포3작업반의 선동사업도 맡아안고 녀성로동자들의 마음과의 사업을 더 진지하게 해나갔다.

정단작업반의 정동무가 신병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는것을 알고 뜻밖의 일로 병원에 입원한 아들보다 먼저 그의 집부터 찾아가 병문안을 하고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보아주어 그가 자리를 털고일어나 혁신자로 되게 한 사실, 직포3직장 한 직포공의 천생산실적이 떨어지고있을 때 그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혁신자였던 어머니처럼 일을 잘하여 직포공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게 한 사실 등 많은 두 작업반원들에게 부어준 뜨거운 사랑과 정에 대한 이야기는 실로 많다.

이처럼 배청옥동무가 가는 곳마다에서는 혁신자, 위훈의 창조자들이 무수히 자라나 증산의 동음이 더욱 높이 울리게 되였다.

이 나날 배청옥동무는 제4차 전국선동원대회에 참가하게 되였으며 얼마전에는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30여년간 선동원사업을 해온 배청옥동무의 체험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기를 다 바치며 품들여 키워낸 혁신자, 위훈창조의 기수들을 많이 가지고있는것, 바로 이것이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선동원의 가장 값높은 재부인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장철범

(시)

그 밤, 그 새벽, 그 아침…

문 춘 심

7월 4일!
무엇이 끝장났고
무엇이 시작되였는가
력사의 무게를 담은 이 하루속에
흐르는
위인의 하루
불멸의 하루
그것은 정녕 하루만의
려정이였던가…

× ×

그밤—
자정도 지나 별들도 잠든 밤
잠들지 않는 이 땅의 숨결인양
밤공기를 흔드는 발자국소리
전선으로 떠나는 야전차발동소리
…
정원의 잎새마저 굳잠들어
그날의 그 걸음 바래우지 못했으리
평온의 웃음지며 단잠에 든
천만자식 고운 꿈 깨칠세라
그리도 조용히
아버지는 집을 떠나 멀고먼 길
나서시였기에…

이밤 위로 미루지 못할 그 무엇
있어
기어이 험한 밤길 오르셔야 했던가
캄캄한 어둠속 몰리치며 가는
단 한줄기 유정한 불빛—
그 불빛처럼 밤밝혀 불타는 눈빛
긴 밤 태우며 불붙는 마음…

혁명의 중하 짊어진 멀고먼 려정
화선으로, 화선으로
달리는 차안에
벌써 몇백번은 울렸으리
《화성》, 《화성—14》…
살붙이같이 소중한 그 부름

아, 《화성》!—
력사의 중대결단 천둥로 명명하신
그길로
불을 안고 달리시는 원수님 심중에
이 시각 또 있으랴
너처럼 정들은 이름
너처럼 힘을 주는 말
너처럼 절박한 열망…

— 기다리라, 《화성》이여
너를 찾아 내가 간다
기다려다오, 화선에서 정을 맺은
사랑하는 전우들이여
못 견디게, 못 견디게 그대들
보고싶어
그대들과 더불어 이룩할 대업있어
천리지척 마음 앞서 이 몸은 간다

오, 한밤에도
이렇게 불탄다 우리의 태양은
깊어가는 밤과 함께
깊어깊어만 가는 무한한 그 로고로
마냥 축적되고 다져지는
새날의 새힘을 마련하며 태동시
키며—

누가 태양은 낮에만 빛난다더냐
온 하루 불쌌어도 못다 준 정과 얼로
더 강렬히 한몸 불태우는
천신의 그 빛!
불사의 그 넋!

누구도 몰랐다
알수 없었다
말없이 소문없이 가신 그 길
분초를 헤이며
간절히 달음치신 그 길로
그 어떤 대사변이 소리치며 올것
인지…

그밤—
고요한 밤
아, 빛나는 밤…

× ×

그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도 이른새벽
검푸른 장막을 들어올리는
환하신 그 미소…
절사의 전투장—발사장천지에
경애하는 그이 나오시였다!

별빛을 밟으며 오신 걸음
차디찬 새벽이슬 맞으며 이으실 때
그 얼정에 물들어 물들어
푸른 자락 펼쳐든 새벽이여

너 그대로
불멸의 례지가 되여
뜨겁게 뜨겁게 아로새겼지
새 력사를 써가시는
그 자욱, 그 음성…

싸늘한 새벽대기를
열풍처럼 호흡하시며
생사를 내댄 전투원들속에 계신
거룩한 모습
탄생하는 생명의 숨결을 지켜서시듯
《화성》곁에서 꼬박 새우신 우리
어버이

새벽잠에서 깨여나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보배덩이 옥동자를 엄싸안아주시듯
수직으로 일떠서는 거대한 동체곁에
못 떨어질 한몸처럼 그이는 서계
셨다

피를 주고 열을 준 자식을 부둥키듯
그 애중한 쓰다듬
그 믿음의 바래움
우리 《화성—14》형의
살아숨쉬는 넋이 되였다
높뛰는 맥동이 되였다

천이런가 만이런가
강국의 하늘가에 떠올릴
희망의 새별을 위해
새떼처럼 날아 퍼지는 우리 아이들
웃음과
새날의 정화로운 출근길위해
각일각 심장이 타드는 초긴장속에
흐른
이런 새벽, 이러한 희생의 순간순
간은

그 새벽속에 있었다
우리의 주체탄이 지구를 박차던
4시 58분, 장쾌한 탄생의 그 새벽도
장하고 미더운 우리의 《북극성》
용용히 전장으로 떠나던
못 잊을 출전의 그 시각도

그 새벽속엔 있었다
이 나라 첫 새벽문 남면지 여시던
위대한 우리 수령님들
한평생 맞고 보내신 새벽들이
가지 않는 그 새벽들속으로
진하게 흐르던 사무치는 숙망이

어머니없는 탄생이 없듯
태양이 없는 지구가 없듯
로고의 새벽이 없는
환희의 아침이 있으랴

새벽이여
내 나라의 새벽이여
청신한 너의 망막속에
새겨넣으라, 또렷한 청사진으로!

목숨보다 소중한 조국과 인민 위
하여
언제나와 같이
첫번째 절사대원이 되신 우리
원수님
그이 어떻게
관가리절사전에로 나아가시였는지
나아가시였는지…

× ×

그 아침—
력사의 축을 다시 세우고
행성의 궤도를 바꾼 대사변의 그
아침
그날의 태양은 그 언제 솟았던가
7월 4일 오전 9시!

그 아침에
우리 사는 지구가 더 아름다와졌다
해재앙의 걱정 재가루마냥 털어버린
정화의 푸른 행성에
마음놓고 꽃들이 더 활짝 폈다
241년을 자랑하던 미국의 《독립
절》이
무서운 멸망을 선고받은 불행의 날
로 화했다
단 39분만에!

—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
— 《화성—14》형시험발사 완전대
성공!
만세! 만만세!…

감격의 눈물에 젖어
눈앞은 자꾸만 흐려져도
온몸, 온 마음속을 꽉 채운 그 영상
우러러볼수록 그이는 태양!
무궁한 아침의 나라
존엄높은 최강국의 눈부신 태양!

키나긴 고행의 밤
가슴타는 운명의 새벽들은
한가슴에 다 묻으시고
끔찍한 격정과 환희의 영원한
아침만을
인민에게 안겨주신
아, 우리 원수님!

보여오누나
만리대공 거침없이 날아가는
우리 《화성》아름다운 비행운에 스민
또 하나 우리 태양의 자리길
남모르는 천신만고 초행길이

기쁨과 아픔
그 모든것 애오라지
승리의 분수령, 오늘에 두고서
오직 앞으로, 앞으로만 질주해온
천만시련의 그 고개고개…

보아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절사대 앞
으로!》
열화의 붉은 심장 꺼내들듯
용사들이 추켜든 저 글발은
그이 자신의 심장에 먼저 내리신
피끓는 돌격명령!
그 크나큰 가슴속에 활활 타번지는
사생결단, 멸사복무의 불길!

거대하게 타래치며 끼얹어지는 불
먼지
고스란히 한몸에 다 맞고 서계시
건만
그렇듯 티 한점 없이 밝게도 빛나는
저 순결의 미소…
한없이 따사로운 그이의 미소!

안으신 사랑이 그리도 뜨거워서
혁을 틀어쥐신분
바처갈 사랑이 그처럼 끝없어서
화선에 나서신분
위대한 사랑의 심장, 그것으로
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시는분

그 사랑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밤
그런 새벽
그런 아침들이
어쩌면 그이 간절한 소원일지도
몰라
사서라도 누리고싶은
들도 없는 그이 행복일지도…

오, 우리의 김정은장군!
그이 계시는 땅에서 사는
무상의 행운이여
그 숨결 흐르는 공기를 호흡하는
인민의 행복이여

이 지구의 유일한 구원자
이 세기의 위대한 향도자
그이는 강철의 원수!
정의의 사병관!
30대의 백전로장!

그이 언제나
우리 마음의 하늘가에 태양으로
빛나
낮에도 밤에도 어느때 어디서나
환희론 새맞이순간에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여

승리의 새날이 어떻게 밝아왔
는가—
우리의 《화성》이
몇계단을 거쳐 날아올랐는가—
부디 가슴깊이 새겨보시라
후손만대 길이 전해가시라
아, 그밤!
그 새벽!
그 아침!…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안아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인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이 12일 평천혁명사적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직맹일군들, 로동자,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기관단총으로 사격하시고 선군조선의 창창한 앞날을 확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주영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수도건설위원회 직맹위원장 한계일,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유남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 윤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은 백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과시이며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날뛰는 카중스러운 원쑤들의 정수리에 무자비한 철퇴를 안긴 쾌승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오늘의 대승리가 해방된 조국땅에 첫 병기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군수공업의 초행길을 전두에서 이끄시였으며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기 위하여 새형의 로케트개발의 협로역경을 한치한치 열어나가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끝없는 심혈과 로고의 고귀한 결실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천사만사의 중하를 단신으로 감당하시면서도 깊은 밤, 이른새벽 시험발사장들과 포연짙은 화선들을 찾고찾으시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친어버이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진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겨안고 나라의 자위적국방력, 핵억제력을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하여 세계를 놀래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통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의 위용을 떨쳐주시고 대양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조선의 강성번영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일군들, 직맹원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판문인 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여 전승의 7월을 영원한 승리의 7월로 더욱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값높은 실천으로 우리 조국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국방과학전사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억척의 성새, 방탄벽이 되여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절사옹위하며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풀베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전국에 호소하는

신천군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진행

뜻깊은 올해 풀베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전국에 호소하는 신천군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12일 신천군 호암협동농장에서 진행되였다.

김창엽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신천군안의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신천군농근맹위원장 류창식의 보고에 이어 호암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철, 농장원 백은심, 화산협동농장 초급농근맹위원장 류동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소식에 접하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대진군의 발걸음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찌기 황해남도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신천군의 협동벌마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으로 정해주시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올해 카물리해를 가시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도 세워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땅을 기름지게 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이자면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농근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중속에 깊이 해설선전하며 당면한 풀베기전투에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열, 애국열이 차넘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거름생산은 곧 알곡증산이라고 하면서 작업반사이, 분조사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을 맹렬히 벌려 매일 풀베기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뜨락또르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베여놓은 풀들을 퇴적장에 제때에 실어들이고 거름생산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군들이 전투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맡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실속있게 짜고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켜 풀베기전투를 최단기간에 성과적으로 결속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새로운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는 만리마시대의 거세찬 전진에 보폭을 맞추며 당면한 풀베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릴것을 전국의 모든 농근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였다.

모임에서는 사회주의경쟁요강이 발표되였다.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애국의 마음을 총투발시켜 강철전선지원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지난 상반년기간에 계획보다 많은 량의 파철을 모아 나라의 강철기둥을 억세게 다지는데 크게 이바지한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강철전선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국방과학전사들처럼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국념원을 꽃피우는 길에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갈 일의로 가슴 불태우며 금속공장지원사업에 발벗고 떨쳐나섰다.

지난 상반년기간 맡겨진 파철모으기계획을 135.7%로 수행한 자강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7월에 들어와서도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도의 일군들은 파철원천탐구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총화와 평가사업을 잘하여 초산군, 강계시, 희천시를 비롯한 많은 시, 군들이 파철모으기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고있다.

강원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상반년기간 금속공장지원사업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였다.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혁신적인 안목과 일본새로 많은 파철원천을 탐구하였다.

함경북도, 평안북도, 남포시, 평양시,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에서는 일군들이 속보와 해설담화를 통한 선전선동사업을 활발히 벌려 대중의 강철전선지원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는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어 상반년기간 계획보다 많은 량의 파철을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다.

상반년 파철모으기계획을 150%이상 넘쳐 수행한 대동강구역, 중구역, 대성구역, 만경대구역, 재령군, 연안군, 송림시를 비롯한 많은 구역, 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금 온 행성을 통제로 뒤흔든 특대사변에 접하고 하늘에 닿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강철전선지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제신성, 무역은행, 송만지도국, 만수대창작사, 유원지총국, 경공업성을 비롯한 많은 성, 중앙기관 일군들도 상반년기간 강철전선지원사업에서 높은 실적을 올린 기세를 늦추지 않고 파철원천탐구사업에 떨쳐나섰다.

철도운수부문의 수송전사들이 파철수송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고있다. 철도성 일군들은 현지에 나가 수송전사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한편 화차수리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주는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고있다. 각 철도국수송전사들이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련일 수송실적을 올리고있다.

지금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애국충정으로 받들어갈 각오를 백배하며 강철전선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날마다 높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이 남아프리카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만났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으로 남아프리카공산당 제14차대회에 참가하고있는 류명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1일 블레이드 은지만데 남아프리카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블레이드 은지만데 남아프리카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총비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남아프리카공산당 제14차대회에 친히 파견해주신것은 국내반동들의 책동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남아프리카공산당 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말하였다. 두 당사이의 관계가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는 남아프리카공산당은 앞으로도 조선로동당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남아프리카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부총비서 등 관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 성황리에 진행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이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뜨거운 송가, 감사의 노래로 뜻깊은 승리의 7월의 환희를 더해주는 공연을 보기 위해 온 수많은 관람자들로 현일 흥성이였다.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주체조선의 자주적존엄과 영웅적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백두산대국의 필승의 기상이 서린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로 장내에 굽이친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남성독창과 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녀성중창 《화성포의 노래》, 라프춤 《승리의 축배》, 가무 《우리를 부러워하라》, 녀성독창과 방창 《당을 노래하노라》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경음악 《공화국로케트병행진곡》에서 출연자들은 빈터우에서 자립적국방공업의 터전을 다지시고 병진의 기치높이 주체적로케트공업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신 핵무장력강화의 길을 이어가시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우리 식 전략무기체계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뜨거운 격정속에 되새겨보았다.

백두의 담력과 배짱, 불같은 애국헌신으로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족사적대업을 타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시여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질 때마다 장내에는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올랐다.

판현악과 남성합창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녀성독창 《조국과 나》, 경음악 《단금에》 등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당의 제일전우, 제일동지가 되여 당의 권위와 국가의 존엄, 인민의 안녕이 실려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한 국방과학전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력사의 모진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만리마의 속도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질풍쳐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 기악과 노래 《빛나는 조국》, 녀성중창 《사회주의전진가》의 노래선률에 실려 장내를 진감하였다.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에서 사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대고조진군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를 과시한 가무 《보란듯이》, 무용 《달려가자 미래로》를 비롯한 종목들도 무대에 올랐다.

최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리를 새겨준 공연은 종곡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끝났다.

우리 식의 관현악과 경음악, 합창과 다양한 성악종목들, 무용의 배합으로 새로운 경지의 음악형상을 창조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전체 관람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자주적존엄과 불패의 국력을 만방에 떨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반제반미대결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승전포성을 높이 울리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전승세대의 추억—우리는 조국의 한치 땅도 피로써 사수하였다

진달래전호

불과 물이 오가고 삶과 죽음이 관가리되는 불타는 전호와 봄의 선구자인 아름다운 진달래, 서로 어울릴래야 어울릴수 없는 이 단어들을 하나로 합쳐부른 군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를 지켜싸운 인민군용사들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50년대 영웅전사들은 정신력이 강하면 원자탄을 휘두르는 제국주의침략군대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실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덕천시 은덕동에서 살고있는 명제혼로인은 전화의 나날 1211고지에서 싸운 전쟁로병이다. 그는 전쟁시기의 위훈담을 부락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1211고지용사들의 위훈담은 아마 얼떡밤을 패도 다 전하지 못할것입니다. 다만 난 오늘 전호가에 핀 일곱그루의 진달래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그 모든것 대신하려고 합니다.》

로병은 창너머 어딘가를 응시한채 조용히 60여년전의 그 나날로 추억의 실마리를 더듬어나갔다.

1952년 봄이였다. 때는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계절이였지만 적들의 파도식공격과 때없이 쏟아지는 줄폭탄에 1211고지에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성한것이 없었다.

어느날 전투가 끝난 후 고지서쪽에 위치한 분대의 병사들은 갱도에 모여앉았다. 이럴 때면 의례히 그러하듯 병사들은 저마다 고향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우리 고향마을은 살구나무동네로 불리웠습니다. 봄이면 마을이 온통 살구꽃천지였으니까요.》

《뭐니뭐니해도 봄의 선구자야 진달래지. 우리 마을 앞산에 붉게 피어나던 진달래가 눈에 선하오. 헌데 봄이 한창이여도 여기서는 풀냄새 한번 맡기가 힘치 않구만.》

그들은 하늘을 가리다싶이 한 불구름과 매캐한 화약내속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온 봄의 훈향을 폐부로 느끼며 떠나온 고향에 대한 깊은 추억에 잠겨있었다. 이때였다. 분대의 막내이로 불리우는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나며 웨치다싶이 말했다.

《진달래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리였다. 그런데 갑자기 《쉬익—쾅!》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갱도가 요동치듯 통째로 흔들렸다. 막내이병사가 느닷없이 뻔한 말을 미처 들어볼새도 없이 또 한차례의 가렬한 전투가 시작된것이다.

며칠후였다. 분대가 차지한 고지의 전호가에 난데없이 일곱그루의 진달래나무가 생겨났다. 매 전투원들의 피지마다에 정성껏 심은 나무가지에서는 꽃망울들이 금시라도 피여날듯싶었다.

사연인즉 이러했다. 그날 전투가 끝난 후 막내이병사에게서 받아오른 중기를 식히기 위해 고지 뒤계선의 샘터에 내려갔다가 폭격에 살아남은 진달래나무 몇그루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난 분대장은 곧 진달래를 떠다가 전호가에 심도록 했다. 그런데 예전치 않았던 일이 생겼다. 분대인원은 일곱명이였는데 진달래는 다 합해서 여섯그루밖에 없었던것이다.

가렬처절한 전투의 나날 전우들을 위해서는 물 한모금을 놓고도 마음을 쓰던 그들이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사정이 달랐다. 전호가에 심을 진달래만은 누구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던것이다. 분대의 막내는 모두의 눈길이 자기에게로 쏠리자 아예 마지막 어섯번째 진달래그루를 품에 그러안은채 우기듯 말했다.

《진달래를 발견한 사람도 나고 그걸 떠온 사람도 나예요.》

다른 분대원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전호가의 진달래,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꽃나무가 아니였다. 두고온 고향과 정든 사람들 아니 해방후 꿈같이 흘렀던 5년간의 그 모든 행복에 대한 애틋한 추억이였다.

그러나 류다른 싱정이도 한때뿐, 다음날 전호가에 또 한그루의 진달래가 심어졌다. 깊은 밤 부분대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적들이 욕설거리는 적진으로 은밀히 기어내려가 떠온 진달래였다.

그후 전투로 날이 밝고 해가 지무는 속에서도 병사들은 전호에 심은 진달래포기를 애지중지 가꾸었다. 자기들이 지켜선 전호를 《진달래전호》로 정담아 불렀다. 갈증에 시달리면서도 중기의 방열통을 식히고 물이 남으면 진부 진달래나무에 기울이군 했다.

어느날 분대에서 제일 나이많은 아바이병사가 희생되였다. 전투도중 고지 뒤계선의 샘터에서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다가 적탄에 맞았던것이다. 전우들이 달려가보니 그의 한쪽다리와 복부에서 더운 피가 뿜어져나오고 있었고 그는 손으로 철갑모를 움켜쥐고 나간 총알자리를 막고있었다. 《진달래전호를 푸…》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둔 아바이병사를 목메여 부르며 분대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부상을 입은 즉시 지혈을 하면 위급한 순간을 넘길수 있었지만 그러면 철갑모의 총알자리에서 손을 메야 했기에, 그러면 중기환총에 넣어줄 물이, 전호가에 핀 진달래에 무어줄 물이 적어지겠기에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친 아바이, 나이많은 그 병사는 어제날의 농민이였다. 진달래를 떠올리면 날 그는 봄이면 온갖 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황금이삭 설레이는 고향마을에 대해 감회깊이 추억하며 목숨보다 귀중한 고향땅을 위해 전투에서 언제나 용감할것을 명세했었다.

그날 전투원들은 전우의 복수를 다짐하며 비탈치는 한우속을 뚫고 육박전에로 나아갔다. 놈들은 이른새벽부터 저녁무렵까지 숱한 병력을 동원하여 여러차례의 공격을 들이댔지만 진달래전호앞에서 무리죽음만 낸채 퇴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언제인가 한 병사가 전투의 어가시간에 30m가량 떨어진 전호가앞의 큰 바위쪽으로 주먹만 한 돌멩이를 날려보내는 훈련을 할 때였다. 영문을 묻는 지휘관에게 그는 이렇게 사연을 설명했다.

《전번 전투때 적들이 바위 뒤쪽에 숨어서 기관총을 갈겨대는게 아니겠습니까. 아바이가 남기고간 진달래주변에 적탄이 와 박히는걸 보니 눈에서 불이 펑펑 일었지만 어디 머리를 들수가 있어야지요. 마침 분대장동지가 이쪽으로 달려와 기관단총편발사격으로 그놈들을 쓸어눕혔기망정이지…

그래서 교통호안에 몸을 숨기고도 능히 수류탄으로 바위 뒤쪽을 명중할수 있게 훈련하고있던중입니다.》

실지로 그 병사는 며칠후에 있은 전투에서 여라문놈이나 되는 적병들을 단 한개의 수류탄으로 통째하게 소멸해치우는 위훈을 세웠다.

그만이 아니였다. 분대의 전투원들모두가 자기가 지켜선 전호, 진달래가 활짝 피여 웃는 조국의 한치 땅을 지켜 고귀한 청춘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싸웠다.

* *

로병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그는 이렇게 말끝을 맺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대로 전승의 그날까지 조국의 고지를 피로써 사수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였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호가의 진달래는 곧 조국이였습니다. 그것은 장군님께서 주신 땅이고 공장이였으며 그 모든것을 비껴안은 내 조국의 한 부분이였던것입니다.》

본사기자 리남호

전승의 메아리—전시가요명곡들

《결전의 길로》

노래 《결전의 길로》는 주체40(1951)년에 창작된 전시가요이다. 이때는 인민군장병들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허여남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 적들에게 커다란 참패를 안긴 자랑찬 승리의 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전사들은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재보인 전시가요는 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을 헤치며 승리를 펼쳐온 인민군용사들의 넋이고 숨결이다. 노래 《결전의 길로》 역시 그들의 불멸의 위훈과 심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창작되였다.

전투속에 날이 밝고 저무는 전선지구에 대한 종군길에서 창작가들은 어느날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전우들의 돌격로를 열어놓은 한 소대장의 최후를 목격하게 되였다.

그날 쓰러진 소대장을 품에 안고 전우들은 창작가들에게 이런 때 원쑤를 무자비하게 요정낼 돌격가를 지어달라고 웨치였다. 인민군용사들의 격정은 창작가들의 심장을 달구어주었다. 그 후 창작가들은 병사들의 심정을 담은 노래를 창작하기 위해 애썼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때 어버이수령님께서 문학예술작품창작과 관련하여 주신 교시는 창작가들의 눈을 번쩍 띄워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성은 몇몇 병사들의 영웅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대중적영웅주의에 있다고 하시며 인민군장병들이 전투에서 발휘한 히다한 영웅성과 용감성은 그들이 조국과 인민앞에 지니고있는 성스러운 의무를 철저히 자각하고있으며 그것을 빛나게 수행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새겨안고 1211고지계선의 용사들과 함께 싸우는 과정에 창작가들은 인민군군인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온넋으로 절감하였으며 마침내 노래 《결전의 길로》를 완성하였다.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피흘린 동지를 잊지 말아라》

희생된 전우의 복수를 다짐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금시라도 보이는것만 같은 노래는 만사람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노래는 1211고지의 방위자들속에서 먼저 울려퍼지였으며 적들의 《하기 및 추기공세》를 짓부셔버리는 강위력한 음악포성으로 되였다.

《구령은 내렸다 한우를 뚫고 나가자 동무여 심멸의 길로》라는 구절을 부르며 인민군용사들은 고지가 낮아지도록 퍼붓는 줄폭탄속에서도 굴할줄 몰랐으며 파도식공격을 들이대는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인민군용사들의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밝힌것으로 하여 노래 《결전의 길로》는 그 감화력이 더욱 컸다.

생사를 관가리하는 결전장에 높이 울린것이 《수령께 맹세한 붉은 맘으로 나가자 동무여 심멸의 길로》의 구절이였으며 포연속에서 펄펄 나붓긴것이 우리의 공화국기였다.

1211고지방위자들이 가슴속에 안고 산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래양의 모습이였다. 하기에 그들은 불비속에서 원쑤들에게 더욱 무자비한 복수의 무리죽음을 줄것이며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원쑤와 싸워 조국의 고지를 끝까지 고수할것이라는 신념의 맹세를 적은 편지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리였다. 그들은 탄알이 떨어지면 수류탄으로, 수류탄이 떨어지면 육탄으로 달려나가 원쑤의 숨통에 복수의 총창을 꽂고 또 꽂았다.

전화의 그 나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수령께 맹세한 붉은 맘으로 나가자 동무여 심멸의 길로》라는 구절이 새겨진 전시가요 《결전의 길로》는 오늘도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북돋아주고있다. 이 정신이 세기를 이어 굳건히 이어지기에 우리의 인민군대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그 위용 만방에 떨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차수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의 위훈

전화의 나날 녀성내무원이였던 한 전쟁로병의 이야기

위대한 전승사의 갈피에는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운 계급의 참된 투사—내무일군들의 위훈도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천산시 장덕동에서 살고있는 최장순전쟁로병은 해방전 남강원도 홍천군에서 막벌이로동자의 딸로 태여났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되여 인민군대가 고향마을을 해방한 날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도 김일성장군님의 슬하에서 행복을 누리며 잘살게 되였구나. 장순아, 손에 홍을 잡고 로동자, 농민의 세상이 된 우리 고향땅을 목숨으로 지키거라.》

이렇게 되여 그는 17살나이에 군대무서에 입대하게 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앞둔 어느날 그가 반동놈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전투에 참가했을 때였다. 최장순은 저도모르게 긴장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때였다.

《장순이,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저놈들을 무자비하게 쏴갈겨라!》

불이 활활 이는듯 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내무서장이 웨치는 소리였다. …

《솔직히 그때 가슴이 후두둑 뛰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난생처음 사람앞에 총구를 내댔으니까요. 아니,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였습니다.》

최장순전쟁로병은 그로부터 며칠후 자기가 계급투쟁이란 어떤것인가를 뼈에 새겨넣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깊은 회억에 잠겨 이야기했다.

후퇴의 길에 오른 군대무서일군들이 산발을 타고 이웃군의 어느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다. 온 마을이 불타고있는 가운데 치안대놈들이 무고한 인민들을 마구 학살하고있었다. 즉시 산을 내린 그들은 놈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눕혔다.

그런데 희생된 인민들과 처단된 원쑤놈들을 하나하나 일별하던 최장순은 소스라치듯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속에 고향마을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는 낯짝들도 있었던것이다. 며칠전 그가 참가했던 전투때 내무원들의 손에서 빠져나간 몇 안되는 놈들이였다. 놈들은 이곳에 숨어있다가 마을사람들은 물론 후퇴의 길에 오른 한고향사람들까지 무참히 살륙했던것이다.

그후 세포와 양력의 산발을 타고 기나긴 후퇴길을 걸으며 최장순은 억세게 자라났다.

인민군대의 재진격과 함께 원산시내무서(당시)에 배치된 그는 직간첩과 파괴암해분자들을 적발숙청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언제나 앞장섰다. 그 나날 최장순은 화선입당과 함께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였다. …

최장순전쟁로병은 추억깊은 상념에서 깨여나며 우리에게 말했다.

《준엄한 전쟁은 우리모두에게 계급투쟁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하기에 전화의 나날 나룬이 아닌 내무일군들모두가 수령과 제도, 인민을 보위하기 위해 그처럼 용감하게 싸웠던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그러나 력사와 인민은 조국의 한치 땅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전승세대들의 불멸의 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어머니조국을 피로써 지켜낸 영웅전사들의 빛나는 위훈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김광림 찍음

신념의 궤도따라 헤쳐온 불비속만리

강동군 대리로동자구 합력원전쟁로병

전화의 수송전사들처럼!

이것은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증송의 기적소리를 힘차게 울려가는 수송전사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신념이고 의지이다.

하다면 전화의 불비속을 뚫고 헤치며 전시수송을 보장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에 적극 이바지한 철도수송전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였는가.

우리는 여기에 강동군 대리로동자구에서 살고있는 합력원전쟁로병의 전시투쟁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특히 철도운수부문 일군들이 아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주체39(1950)년 9월 합력원동무는 서울 용산역에서 인민군대 무상병들을 후송하여 올데 대한 명령을 받게 되였다. 어려운 임무였다.

적기들이 수시로 달려들어 폭탄과 기총탄을 미친듯이 퍼부어댔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증스러운것은 대오안에 생겨난 동요분자, 변절자였다.

신념은 사람의 진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어느날 한놈의 배신자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놈은 달라진 전선형편에 대해 두루이 설명하고나서 북으로 가면 망한다, 남으로 나가야 살수 있다고 력설했다.

놈을 노려보는 합력원동무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펄펄 이는듯싶었다. 그의 입에서는 추상같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이 기관차는 나와 함께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북으로만 달릴것이다. 공화국을 배반한 네놈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것이다.》

그러는 합력원동무의 눈앞에는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려온 꿈같은 나날이 떠올랐다. 해방전 할머니의 치마폭에 싸여 동냥젖을 얻어먹으며 자라야 했던 그였다.

뼈도 굳기 전에 소년화부가 되여 왜놈의 철도기관구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피눈물을 씹어삼키던 그를 해방조선의 기관사로, 기관구의 첫 당조직의 한 성원으로 내세워주시고 참된 삶을 안겨주신 분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하기에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용약 전시수송의 길에 올랐으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그 준엄한 시기에도 목숨은 버릴지언정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만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두줄기 궤도를 따라 오직 앞으로만 내달릴수 있었던것이다.

어느날 적구에 들어가 중요물자들이 실려있는 화차들을 끌고 올데 대한 임무를 받았을 때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적들이 이미 평양가까이에 들이닥치고 적의 락하산무대가 순천과 숙천에 내렸다는 사실까지 알고있던 그였다. 합력원동무는 어려운 길을 떠나기에 앞서 늘 그리하듯 가슴에 소중히 품은 당원증우에 손을 얹고 복녀하늘을 우러르며 심장의 맹세를 아뢰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설사 이 몸은 살아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당원 합력원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떠난 그는 적강점지역의 어느 한 기차굴에 머물러있던 7개 차량의 중요물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소개시킴으로써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생명을 내대야 하는 이런 수송임무가 어찌 한두번이였으랴. 하지만 합력원동무는 이렇듯 주저없이 임무수행의 길에 올랐고 그때마다 당에 대한 무한한 충정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는 언제 한번 자기의 투쟁공적을 특출한 위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당에서는 그의 가슴속에 추억으로 간직되여있던 전시투쟁공로를 속속들이 헤아려 값높은 위훈으로 빛내여주었으며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도 불러주어 그에게 인생의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었다.

전화의 사선천리, 불비속만리를 용감히 헤쳐온 어제날의 기관사는 오늘도 혁명의 후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당과 수령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다!

본사기자

참된 의리를 안고 걷는 길

실화

뉘엿뉘엿 해가 기우는무렵이다. 한 할머니가 중년의 녀성과 그의 딸인듯싶은 고급중학교학생과 함께 금한 길을 걷고있다. 그들은 황주군 읍에서 사는 70나이가 지난 정영혜와 그의 딸 하옥경, 외손녀 김하연이다.

《할머니처럼 나도 전쟁로병할아버지들을 찾아갈 때가 제일 기뻐요.》라고 하며니 하연이가 앞서나간다.

《그래요. 전쟁로병동지들을 볼 때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는것만 같애요.》

제차 동을 다는 딸의 말을 들으니 정영혜는 공연히 속이 바재여진다. 세월은 류수같다며니 전쟁로병들을 위한 길에 나선지도 어언 10년이 되여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의 아름다움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고상한 정신세계입니다.》

9년전 건군절이였다. 정영혜의 집으로 20명이나 되는 전쟁로병들이 모여왔다. 례복을 차려입은 그들은 어제날의 모습을 되찾은듯 하나같이 름름했다.

하지만 정영혜의 남편 하춘산은 병석에 든 몸이였다.

정영혜는 절로 눈금이 촉촉해왔다.

뇌졸중으로 침상에 누운 혁명동지를 고무격려하는 어제날의 전투비행사들과 운신하기 힘든 몸이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동지들을 위해 차린 상이니 어서들 명절을 경축하자고 몇번이나 곱씹는 어제날의 유도항법사 하춘산, 하늘을 종횡무진하던 그 시절부터 이날이때까지 언제나 동지적우애심이 깊고 락천적인 남편과 그의 전우들이였다.

시간이 흘러 종일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던 전쟁로병들은 돌아갔으나 남편은 조금도 지친 기색이 아니였다.

하춘산은 그날 안해와 밤이 퍼 길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동강변에서 의학대학을 졸업한 정양처녀를 만나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긍지와 자부심을 터놓던 그 시절이며 당과 국가의 은정속에 결혼을 하고 얼마만에 멀리 전선으로 달려가 전투비행사들을 승리에로 유도하던 잊지 못할 나날들, 오랜만에 도시풍의 안해가 부대를 찾아오는 길에 들가에서 만들었다는 메밀꽃머리띠를 보며 조국의 귀중함과 공민의 본분을 다시금 새겨주던 일이며 하늘초소를 떠나온 자신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은정에 의해 전쟁로병의 영예를 지니던 2005년의 감격 등 얼떡밤을 지새운대도 이야기끝은 도무지 있을것 같지 않았다.

젊음을 되찾은듯 지나온 나날을 하염없이 더듬던 남편도 곤히 잠들었으나 정영혜는 도저히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지 못했다. 비행사들이 떨치는 위훈의 밑거름이 되여주던 유도항법사 시절처럼 지난 수십년동안 그렇게 옹심깊은 마음과 뜨거운 정으로 자기를 일깨워주고 이끌어온 남편이였다.

남편은 이튿후 안해와 딸, 전우들이 지켜보는 속에 조용히 떠나갔다.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남편은 피의 결전을 벌려온 전우들과 더불어 진군길의 하루를 그렇게 락천적으로 즐겼게, 회억길이 지웠던것이였다.

《나의 동지들을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진정다해 대해주길 바라오.》

정영혜가 딸과 함께 오열을 터치며 들은 남편의 마지막말이였다.

생의 마지막순간에 하고싶은 말이 많았어도 굳이 이 말만 애써 남긴 남편의 심정을 정영혜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

하춘산은 정영혜에게 있어서 생활의 길동무이자 오직 당의 사상과 뜻으로 심장을 뚫으며 안해를 이끌어온 혁명동지, 인생의 스승이였다.

영결의 날 정영혜는 속으로 외웠다.

(그래요. 당신은 영원한 나의 유도항법사예요.)

이러는 안해를 응시하는 사진속의 남편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내는것만 같았다. 꼭 그러리라 믿는다고.

그때부터 사진속의 남편과 마음속대화를 나누는것은 정영혜의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였다.

《기뻐하세요. 오늘이 박동지의 생일이여서 당신의 탕무대로 다녀왔어요. 박동지는 물론 전완식련대장동지를 비롯한 로병들이 누구나 하춘산유도항법사를 보는것만 같다고 어찌나 칭찬하던지 몸둘바를 모르겠더군요. 당신의 말대로 이제 다 동지에 대한 믿음이겠지요.》

《봄씨뿌리기를 하는 전쟁로병동지들에게 약소하지만 우리 집 성의를 바쳤어요. 생각은 굴뚝같았으나 아직 모든것이 부족하여 별로 신통치 못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꼭 봉창을 하겠어요.》

《오늘은 당신의 생일이예요. 모든 전쟁로병동지들을 우리 집에 초청했어요. 당신이 있을 때처럼 모두가 제 집에서와 같이 즐거이 웃고 떠드는데 내 마음도 얼마나 즐겁던지… 노래를 불러도, 이야기판을 펼쳐도 서로 승벽을 부리는 모습들은 여직 젊었던 그 시절 그대로예요.》

《오석록동지를 비롯한 전쟁로병동지들이 오후에 륫강냉이를 가져왔어요. 얼마나 옹색했던지… 해마다 장냉이며 감자며 지어 김장용남새까지 가져오는 전쟁로병동지들이예요. 이런 대접을 받자고 시작한 일이 아닌데도 말이예요.》

…

탈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정영혜가 남편의 사진앞에 마주서는 때가 더욱 잦아졌다. 전쟁로병들을 위한 길에서 겪게 되는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남편과 함께 나누는것이 정영혜의 습관으로 된것이였다.

지난해 동지날, 진눈까비가 지줄게 내리는 날씨에도 정영혜는 동지죽을 쑤어가지고 전쟁로병들을 찾아갔다.

생일을 맞는 리홍원로병과 그의 안해는 물론 다른 전쟁로병들도 불덩어리를 안은것처럼 얼굴들이 상기되여있었다.

5리가 더되는 길을 왔어도 여직 뜨거운 동지죽때문만이 아니였다.

군인가족생활을 할 때에도 그랬지만 남편이 제대되여서도 그리고 남편이 먼저 간 다음에도 이렇게 뜨거운 정과 열로 남편의 전우들을 극진히 위해주고있는 옛 유도항법사의 안해, 누가 알아주건말건 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진정을 안고 전쟁로병들을 위한 길을 걷고 또 걷는 그의 마음과 정신세계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전쟁로병들과 안해들은 거듭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통구밖까지 따라서는 그들을 뒤에 남기고 돌아오며 정영혜는 또다시 사진속의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쟁로병들은 절더러 수고가 많았다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복은 벗었어도 언제나 마음을 푸른 하늘에 얹고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고그리는 전쟁로병동지들이 아닙니까.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받아안고 앞가슴이 모자라도록 훈장들이 빛나는분들이지만 그들은 얼마나 고지식하고 순박합니까.

어제날의 공적을 묻어두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충직하게 당과 조국을 받들어가는 전쟁로병들을 위하는 길에서 정말 많은것을 배우고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은 그대로 전쟁로병들이 지닌 투철한 수령관, 불타는 조국애, 고귀한 전우애를 따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정신세계에 비추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사는 바로 이것이 당과 수령이 바라는 길이고 자신이 더욱 아름다와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미흡한 나의 생각을 당신도 지지해주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끝없이 나누고싶은 남편과의 마음속이야기는 그만 중동무이되였다.

어느새 집에 당도한것이였다.

《할머니가 오셨어요.》 하는 손녀 하연의 목소리가 울리더니 딸 옥경이가 급히 달려나와 진눈까비에 다 젖은 배낭을 벗겨들었다.

옥경은 연방 물었다.

《로병동지들과 어머니들이 모두 무고하시던가요? 건강은 어떠하시던가요?》

정영혜는 다들 탈은 없다고들 하지만 나이든분들이니 네가 또 한번 건강검진을 해주렴하고 일렀다. 전쟁로병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고있는 만딸은 군인민병원의 의사였던것이다.

매일처럼 전쟁로병들의 건강을 념려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하옥경의 심정은 뜨거워났다.

전쟁로병들을 찾아가거나 혹 거리에서 만나면 사려깊은 눈으로 그들의 건강상태부터 살피는 어머니였다. 젊어서부터 비행사들의 생활 한복판에 뛰여들어 군복입은 남편의 무사수, 최고사령부 작식대원답게 살아온 어머니였다.

언젠가 가을걷이에서 수고많은 전쟁로병들을 위해 푸짐한 상을 준비하는 정영혜의 일손을 도와주던 평양에서 사는 동생 하옥성이 말했다.

《우리 어머닌 참 훌륭해. 자기 집보다도, 자기 딸과 손녀보다도 아버지의 전우들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것을 다 바친다는것이 어디 쉽나요.》

정영혜는 막내딸의 자랑기어린 말을 황황히 밀막았다.

《그분들의 공적에 비하면 이 에미가 바치는것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속마음을 그대로 터놓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 하옥경의 생각은 많았다.

오랜 세월 전쟁로병들을 위한 길에 참으로 지극하고 진실하며 열화같은 사랑과 정을 바쳐온 어머니였다.

그 과정은 헐치 않았다. 그러나 그 길은 남편과 전투비행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의 높이에 자신을 올려세우는 과정이고 생의 말년까지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인간수양에는 만족이나 졸업이 없다.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끝없이 계속된다.

이것을 남편과 전쟁로병들은 자신들의 충직한 삶으로 보여주었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웃음으로, 가슴치는 유언으로 보여준 그들의 삶을 정영혜는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것이다. 오늘은 그들처럼 자기의 인생으로 딸과 손녀를 참다운 길로 이끌고있었다.

정영혜도 어느덧 인생의 유도항법사가 된것이였다.

본사기자 김치곤

혁명적당건설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신 불멸의 업적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돐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 나이제리아, 알제리, 남아프리카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태양칭송의 만년재보》,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은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들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으시여 조선로동당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

세계는 미국과 서방의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행복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고 옳바른 지도사상이 있으며 훌륭한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다.

나이제리아 나이지주정부상임비서는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당,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경축모임, 강연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돐에 즈음하여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체스꼬, 로므니아, 끼르기즈스딴, 파키스탄, 인디아에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경축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준엄하였던 1990년대에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또한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온 세계가 공인하는 자주정치의 대가이시다.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부위원장 토마스 리히테르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당,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백전백승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명예위원장 이리 야르까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십성상 조선로동당을 령도해오시면서 혁명적당건설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시였으며 조선의 사회주의건설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특출한 공적을 이룩하시였다.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인 끼르기즈스딴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아. 우쑤브바예브,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자베드 안싸리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도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를 펼치시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격찬하였다.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경축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로므니아, 앙골라, 란자니아, 메히꼬에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강연회가 진행되였다.

강연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책임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짱그리 바치신데 대해 언급하였다.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자이레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며 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조선인민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신심에 넘쳐 전진하고있다고 찬양하였다.

앙골라 자이레주병원 원장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력은 더 높이 과시되고있으며 조선인민은 자기가 선택한 길로 꿋꿋이 나아가고있다, 조선인민이 모든 분야에 걸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로씨야신문들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신문들이 6월 14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꼼소몰스까야 쁘라우다》, 《류벤스까야 쁘라우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 등 제목의 글들을 련재하였다.

신문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건설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였다고 하면서 우리 당을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반석같이 다지시고 선군혁명위업의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그이의 업적을 상세히 전하였다.

또한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있어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불패의 당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올수 있었다고 서술하고 절세위인의 당건설업적은 사회주의조선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브뜨라》는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두산의 기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령장으로서의 탁력과 배짱으로 준엄한 조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신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 소개하였다.

하바롭스크변강인터네트신문 《제브리 데웨》는 수십성상에 걸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령도사를 찬양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변함없는 지도사상으로 삼고 투쟁하여왔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권위는 전체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하신 그이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1964년 6월 19일은 당창건기념일인 1945년 10월 10일과 함께 조선로동당력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에서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8일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있었다.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김연주 문화국 국장, 길림지구협회 일군들과 중국 길림성인민정부와 길림육문중학교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길림지구협회의 명의로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료녕지구협회 성원들은 중국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림상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7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과 베이징시에서 살고있는 조선공민들이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참가자들은 대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절세의 애국자, 인류의 태양

여러 나라 인사들 열렬히 칭송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며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자말푸르지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기에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자주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총대우에 혁명위업의 승리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도 있다는 선군의 진리가 밝혀지게 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적인 모범을 창조하신 김일성주석의 존함은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빛나고있다.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은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현실과 인민의 리익에 맞는 건국로선을 제시하시고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시였다고 칭송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절출한 정치천로이시며 뜨거운 인간애로 세하를 감동시키신분이시라고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격정을 토로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비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러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시였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령도자, 불세출의 대성인이신 그이의 사상과 위업은 영원불멸할것이다.

로씨야정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김일성동지의 업적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후계자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김일성동지의 사업을 충직하게 보좌해드리시면서 국가령도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완벽하게 갖추어나가시였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틀림없이 계승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딴마 미트 라르보슬란사 총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류력사에는 김일성주석처럼 세기를 이어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는분은 없다.

그이는 자주의 기치밑에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절세의 애국자, 인류의 태양이시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실현해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떨치며 경제강국건설에서도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자주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극악한 대결광신자의 마지막발버둥질

홍용표역도가 통일부 장관감투를 벗어놓는 마지막날까지 동족대결에 미친 자기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얼마전 역도는 그 무슨 《리임식》이라는데서 자기가 《정화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린 개 허바닥놀리듯 재잘거리던 끝에 《핵개발에 대한 집착》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악랄하게 걸고들었다. 또한 《북을 더 꽁꽁 묶어야 한다.》느니, 《압박과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느니 하고 피대를 돋구었다.

천성적인 대결분자인 홍용표가 그 무슨 《정화와 통일》이니, 《기반구축》이니 하며 자기가 임기기간 무엇을 해놓은듯이 자화자찬한것도 미친것이지만 쫓겨나는 순간까지 치떨리는 대결악담을 쥐친것은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그 어떤 주견이나 주대도 없이 박근혜와 같은 대결광녀의 꼭두각시, 환관노릇을 해먹다가 개밥에 도토리신세가 된 더러운 인간추물이 무슨 할 소리가 있다고 이른 나발질인가.

홍용표가 박근혜의 치마폭에 휘감겨돌아가면서 북남관계의 걸목을 타고앉아 온갖 못된짓을 일삼아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자가 통일부 장관자리에 들어앉으면서 《남북관계의 실질적전진을 이루겠다.》느니 뭐니 하였지만 행실은 정반대였다.

역도는 박근혜가 외우는 주문대로 북남대화의 문을 꽁꽁 닫아매고 《대북제재》와 《압박》을 부르짖으며 북남관계를 최악의 과국에로 몰아갔다. 나중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추동에 따라 북남협력의 마지막보루였던 개성공업지구를 서슴없이 폐쇄하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그리고는 그 누구에 대한 《뻐아픈 고통》이니, 《혹독한 대가》니 하고 넋두리질을 하며 무슨 큰일이나 해낸듯이 목을 빼들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역도는 《정화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것이 아니라 북남관계의 기초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홍용표는 이번에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고아댔는데 사실상 역도는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내려고 최대로 발악하였다. 저지른 죄악으로 보아 홍용표는 박근혜역도와 함께 무조건 숙장되여야 할 특등역적이다.

남조선에서 《통일부》라는 문패를 붙인 반통일기구가 생겨난 때로부터 지금껏 그 우두머리가 계속 바뀌였지만 홍용표와 같이 북남관계를 깨깨 망쳐놓고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최선을 다했다.》느니 뭐니 하고 수염을 내리쓴 철면피한은 없었다.

역도가 치마두른 늙은 요귀들의 꼭두각시노릇이나 하면서 얻은것이란 앵무새, 찹바지, 시라소니, 얼뜨기라는 오명뿐이였고 이자가 도사리고있던 통일부에는 반통일부, 분렬고착부, 제재부, 깡통부, 밥통부 등 온갖 창피스러운 딱지가 다 붙었다.

그런데도 홍용표역도가 민족앞에 저지른 만고의 반통일죄악을 치적으로 광고한것은 미치광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뻔뻔스러운짓이다.

홍용표역도는 그 어떤 변명과 권모술수로써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반대하면서 동족압살과 《제재통일》책동에 미쳐날뛴 자기의 흉악한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라선 박근혜역도와 함께 비참한 종말을 고할 자기의 가련한 처지도 가늠 못하는 천하바보의 넋두리질에는 실로 조소를 금할수 없다.

홍용표역도가 이번에 그 누구를 《더 꽁꽁 묶어야 한다.》느니, 《압박과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느니 하고 게거품을 물고 고아댔는데 여기에도 고약한 속심이 깔려있다. 남조선의 현 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지 못하게 빗장을 질러놓자는것이다.

구데기심사는 썩은 물만 생각한다고 지독한 대결광의 흉심은 어디 갈데 없다. 골통에 온통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야망만 가득차있는 홍용표는 이처럼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제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드세찬 전진에 얼혼이 나간 패배자의 단말마적인 발버둥질에 불과하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격이라고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히는 마지막순간까지 동족대결을 부르짖는 이런 추악한 정신병자에게는 하루빨리 민심의 준엄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

허 영 민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남조선에서 현 당국의 반인민적인 로동정책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민주로총은 로동권보장과 보수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에 떨쳐나섰다. 6월 30일 서울에서는 민주로총소속 로동자 6만여명이 참가한 총파업투쟁이 벌어졌다. 이들의 투쟁에 《전교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교원들과 청년학생들,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계층이 적극 합세해나섰다.

민주로총의 총파업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다.

한줌도 못되는 재벌들의 리익만을 옹호하면서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은 피뢰보수패당의 반역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것은 박근혜역도를 파멸시킨 초불민심의 요구이다. 하지만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아온 박근혜패당의 악폐는 청산되지 않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비정규직문제해결과 최저임금인상 등에 대한 로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특히 현 남조선집권자는 얼마전 미국에 대한 구걸행각을 벌려놓고 그 무슨 《북핵문제해결》을 떠들며 상전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대북압박공조》를 적극 실현하려는 친미굴종적이며 매국적인 자세를 드러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을 지향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였다고 하여 로동의 권리, 로동자들의 지향과 요구가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실상 피뢰보수패당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남조선사회전반에 걸쳐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파쑈독재와 반인민적악정과 같은 온갖 적폐가 그대로 남아있어 초불민심을 우롱하고있으며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있다. 그러니 남조선로동자들이 어찌 가만히 앉아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만 있겠다고 하겠는가.

남조선에서 수많은 로동자들이 총파업투쟁에 떨쳐나선 가운데 지난 7월 1일 서울의 곳곳에서 민주로총산하 로조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로동권보장과 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철폐와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기세를 올리였다. 8일에는 민주로총과 《전국농민회총련맹》 등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민중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인상과 《싸드》배치철회, 백남기농민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갔다.

남조선에서의 인민투쟁의 력사는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가 실현될 때에만 로동자들의 진정한 생존권도 보장될수 있다는것을 교훈으로 새겨주었다. 친미사대와 파쑈독재에 환장한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의 악정하에서 남조선로동자들의 생존권은 너무도 처참하게 짓밟혀왔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로동자들은 현 당국의 대미추종, 동족대결정책과 로동정책을 반대하면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얼마전에도 그들은 《초불로 미국을 쓸어버리자.》, 《남북관계 개선하라.》, 미국과의 《종속적인 동맹을 폐기하라.》, 《싸드》배치 철회하라.》고 웨치며 미국대사관포위투쟁을 벌리였다. 지금 남조선로동자들은 반미투쟁을 생존권투쟁과 결합시켜 전개해나가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기세는 충천하다. 보수의 잔재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새 정치, 새 생활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그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것이다.

김 충 성

사회적악폐청산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

하부구조발전노력

잠보자에서 최근 나라의 하부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나라에서는 하부구조를 발전시키는것을 지속적인 경제장성의 기본요인으로 보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특히 도로, 다리, 항구, 비행장, 철도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현재 전국적인 도로들의 총연장길이는 1만 5 400여km에 달하며 그중 40%이상이 포장되였다고 한다.

7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수출 증가

말레이시아에서 5월에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5% 증가하였다. 이것은 2010년 3월이래 최고기록으로 된다고 7일 정부가 밝혔다.

협 조

브라질과 우루과이가 7일 새로운 사증제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 따라 두 나라 시민들은 영구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한다.

한편 세네갈과 감비아는 전력공급분야에서 호상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회 상원의 결정을 규탄

이란국회 의장 알리 라리자니가 6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회 상원의 반이란결정을 규탄하였다.

미국회 상원이 최근 《만데로》의 미명하에 이란을 반대하는 부당한 결정을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국제 및 지역렬강들이 테로그루빠들을 후원하면서 이란에 위협을 가하였으며 테로행위들에 가담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미국이 반이란결정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들을 산생시킬수 있을것으로 타산하고있지만 그것은 오산이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자기의 그릇된 결정으로 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의 전국각지에서 트럼프의 탄핵을 요구하여 시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즉사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계속 늑아나고있다. 3일 헬만드주에서 《만데로전》에 내몰리웠던 미군병사 1명이 총에 맞아 즉사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

미국방성은 올해에 들어와 미군사망자수가 8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지 진

미국의 몬타나주에서 6일 리히터척도로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로스안젤스시로부터 북쪽으로 약 2 0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티나에 대한 지지 표명

에짚트대통령 아브둘 파타흐 알 씨씨가 9일 팔레스티나대통령과의 담화석상에서 팔레스티나인민의 위업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의 공정하고 포괄적인 해결을 이룩하는것은 지역의 안정보장에 있어서 필수적인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는 중동정화과정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팔레스티나인들에게는 독립국가를 창건할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집없는 미국인들의 가긍한 처지

미국의 뉴욕시에서 집없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있다.

최근 시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5일현재까지 시적으로 집이 없어 한지에서 살고있는 사람수가 12년전에 비해 약 40% 증대되여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부당한 처사 비난

남아프리카국회가 6일 자기 나라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이날 국제형사재판소가 2015년에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를 체포하여 넘길데 대한 요구를 남아프리카정부가 거절한것을 놓고 그 무슨 의무를 저버렸다고 또다시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국회는 이를 단호히 배격하면서 남아프리카는 앞으로도 국제적정의를 수호할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 문제를 계속 꺼들어대면서 압력을 가하려 한다면 남아프리카는 재판소에서의 즉시적인 탈퇴를 선택할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화파괴주범의 황당무계한 넋두리

얼마전 미전략군사령관이라는자가 정화는 저들의 직업이라느니, 미국은 세계대전이 일어나는것을 막기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했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승냥이가 양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것과 같은 실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저들의 핵위협공갈과 핵군비증강책동을 정화의 보자기로 감싸보려는 기만극에 불과하다. 미국은 그따위 뻔뻔스러운 수작으로 세계의 정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를 함부로 우롱하고있다.

인디안들을 멸살한 피바다우에 국가를 세운 때부터 정화파괴행위만을 일삼아온것이 바로 미국이다. 지난 세기의 조선전쟁, 월남전쟁과 그레네이더, 빠나마에 대한 군사적침공 그리고 만전쟁, 발칸전쟁 등은 모두 미국이 감행한 정화파괴행위였다. 오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수리아에서 내란과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때문이다.

미국의 본업은 정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세계대전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였다고 하는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노릇이다.

지구상에서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운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일제가 패망을 앞두고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을 때 미국이 일본의 도시들에 핵폭탄을 투하한것은 항복이냐 받자고 한노릇이 아니였다. 사회주의진영의 장성강화를 막고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1950년대 미제가 작성한 조선침략전쟁계획에는 쏘련의 원동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침공이 포함되여있었다.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로 붙리우는 조선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에게 패배와 수치를 안기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새로운 세계대전에 말려들었을것이다.

사실들은 미국의 핵무기가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여 손쉬운 방법으로 지배주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즉 세계대전의 온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침략국가, 전쟁국가, 정화파괴의 주범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조선민족의 생존권을 강탈할것을 노린 가장 극악한 적대시일변도정책,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공갈책동을 일삼아왔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수많은 핵무기를 배비한것도 모자라 해마다 핵전략자산을 비롯한 대규모무력을 끌어다놓고 불장난소동을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할 기회만을 노리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화하였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은 조선반도주변에 전개한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박을 계속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처럼 장장 수십년간에 걸치는 미국의 핵공갈과 침략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얽혀있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쉽사리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번져진다.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 공화국은 핵을 보유하고 질량적으로 강화해나가고있다.

미제의 극악무도한 핵위협공갈책동은 우리의 선군조선이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서게끔 만들었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있는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바빠맞은 미국이 전략군사령관이라는자를 내세워 그따위 기만극을 펼쳐놓은것 같은데 오늘의 밝은 세상에서 그런것은 통하지 않는다.

국내의 경제위기가 심각한 속에서도 얼마전 미국회 하원 군사위원회가 6 965억US$의 방위정책법안이라는것을 발표하고 그가운데서 많은 돈을 핵무기현대화,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개발에 할당하려 하고있는것은 침략과 전쟁에 환장한 미국의 승냥이본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준다.

조선반도에서 일어가는 핵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도는 우리 공화국이 자위적핵억제력을 비상한 속도로 강화하는데 있다.

선군조선의 핵무력강화에 평화가 있다.

조 택 법

ㄱ-71110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6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